OPEN ACCESS

유성구 도서관 특성화 전환의 체계와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ystem and Effects of the Specialization Transformation of Yuseong-gu Public Libraries

노 영 희 (Younghee Noh)** 장 인 호 (Inho Chang)***
강 지 혜 (Jihei Kang)**** 노 지 윤 (Ji-Yoon Ro)*****
신 영 지 (Youngji Shin)******

초 록

본 연구는 유성구 공공도서관의 특성화를 '보이는' 단계에서 일상 운영으로 '작동'하는 단계로 전환하는 체계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장서・대출・프로그램・서비스・공간・인력・연계망과 관별 주변 환경을 통합 진단하고, 실무자 집단면접, 전문가 자문, 구민 설문으로 주제의 적합성과 수용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10개관 중 9개관이 주제를 보유하나 비도서・디지털 자료, 전담 인력・전용 공간, 외부 네트워크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관별 최종 주제와 핵심가치・비전을 확정하고, 핵심 프로그램 2종・상시 공간 1개・연차 자료 확충 목표・담당 인력・정기 협력으로 이루어진 '기본 운영 단위'를 제안하였다. 더불어 2025~2035년 3단계 실행 일정, 관-관 공동 운영, 공통 성과지표를 제시해 성과와 예산・공간 재배치의 연계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특성화를 주제 선언이 아닌 운영 설계로 재정의하고, 지역 기반의 재현 가능한 모델을 제공한다.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 system for shifting Yuseong-gu public libraries from "visible" to "working" specialization. The authors diagnosed library collections, usage patterns, programs, services, spaces, staffing, partnerships, and local contexts, and examined topic suitability via practitioner focus groups, expert consultations, and a citizen survey. Nine of ten libraries had established thematic areas; however, non-book/digital resources, dedicated staff/space, and networks were underdeveloped. The study identifies library-specific themes aligned with core values and visions, and proposes a basic operational framework: two key programs, one standing space, annual resource targets, responsible staff, and regular partnerships. A three-phase plan (2025-2035), supported by inter-library collaboration and shared outcome indicators, offers a reproducible, place-based model for library specialization. This study redefines specialization not as a thematic declaration but as an operational design, and presents a reproducible, place-based model.

키워드: 도서관 특성화, 지역 기반, 핵심가치, 단계별 실행, 성과지표
Library specialization, Place-based approach, Core values, Phased implementation, Performance indicators

---

* 본 연구는 2025년 대전 유성구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유성구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제1저자)
***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oinchang@daejin.ac.kr / ISNI 0000 0004 6108 9280) (교신저자)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kang@dongduk.ac.kr / ISNI 0000 0004 6815 0603) (공동저자)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yro@gwangju.ac.kr / ISNI 0000 0004 7859 8321) (공동저자)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yjishin@deu.ac.kr / ISNI 0000 0004 7936 7250)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6년 2월 14일 논문심사일자 : 2026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자 : 2026년 3월 8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7(1): 167-186, 202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6.37.1.167

※ Copyright © 2026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www.kci.go.kr

1. 서 론

공공도서관이 직면한 환경은 급격히 복잡해졌다. 저출생・고령화로 이용자 구조가 양극화되고, 학교 밖 학습과 사교육・디지털 학습플랫폼이 일상화되면서 시민의 정보 이용 경로가 다변화되었다. 지역은 다핵적 생활권으로 분절되어 이동 반경과 시간대, 선호 활동이 관마다 상이하고, 주거・산업・생태・문화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포한다. 디지털 전환은 지식 접근의 문턱을 낮췄지만, 동시에 과잉 정보와 주의력 경쟁, 정보격차를 심화시킨다. 일반적인 도서관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고, 이용자 경험도 파편화되기 쉽다. 이제 도서관은 지역의 고유 맥락을 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특성화를 통해서만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특성화의 필요성은 단지 '눈에 띄는 콘셉트'를 갖추기 위함이 아니라 재정과 인력의 제약 속에서 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주제에 맞는 장서-비도서-디지털 자료를 목표치로 축적하고, 상시 활용 가능한 공간과 전담 인력을 집중 배치하면, 산발적 행사 중심 운영보다 대출 회전・체류시간・재참여율이 구조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학교・복지・연구기관・지역기업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주제별로 조직함으로써 도서관의 매개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학습역량(정보판별, 데이터・미디어 문해, 메이킹・실험 기반 탐구)을 주제별 체험과 연결해 시민의 '쓰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유성구는 특성화의 당위가 특히 큰 지역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대학, 산업단지, 정주형 주거지와 생태축이 공존하고 관별 인구・기관 밀도가 뚜렷이 다르다. 이러한 이질성은 한편으로는 수요 맞춤형 설계의 기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의 평균'을 지향할수록 무의미한 중간값 서비스에 머물 위험을 내포한다. 실제로 선행 분석에서 주제 도입률은 높았으나 비도서・디지털 자료의 부족, 전담 인력과 상시 공간의 미비, 일회성 프로그램, 협력 네트워크의 불안정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보이는 특성화'-장서나 간판, 이벤트 중심의 표층적 차별화-가 '작동하는 특성화'-주제・장서・공간・인력・서비스・연계가 하나로 설계되어 일상에서 재현되는 체계-로 전환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성구 공공도서관의 특성화를 통해 공공적 책무를 재정의하고, 지역의 이질적 수요를 서비스 혁신으로 전환하는 운영 설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별 장서・대출・프로그램・서비스・공간・인력・연계망과 교육・문화・산업・생태자원, 인구구성・생활동선 등 주변 환경을 통합 진단하고, 실무자 집단면접, 전문가 자문, 구민 인식조사를 통해 주제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관별 최종 주제와 핵심가치・비전을 확정하고 '기본 운영 단위'-핵심 프로그램 2종, 상시 이용공간 1개, 자료(도서・비도서・디지털) 연차 확충 목표, 전담 인력과 정례 협력-를 표준화한다. 아울러 2025~2035년을 범위로 진단・브랜딩기-지역연계 확산기-디지털 융합 고도화기의 3단계 실행 일정을 설계하고, 구 차원의 조정・지원 체계, 관-관 공동 프로그램, 표준 협력서, 공통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성과와 예산・공간 배분의 연계를 제시한다.

www.kci.go.kr

2. 선행연구

공공도서관 특성화 논의는 초기에는 정책·개념 정립과 필요성 제기에서 출발해, 이후 지역 맥락 분석과 실제 운영전략으로 확장되어 왔다. 조찬식(2008)은 공공도서관 특성화의 개념·유형을 정리하며 일반화된 장서 중심 접근의 한계를 지적했고, 특성화의 실효성을 위해 서비스·인력·네트워크를 포괄한 체계적 설계를 제안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노영희 외(2017)의 연구에서 더욱 구체화되는데, 이들은 정책·사례 검토를 통해 특성화를 '주제 명명'이 아닌 '운영 철학-장서-공간-인력-프로그램-연계'의 통합 설계 문제로 재정의하였다.

사례 기반 연구는 특성화의 구체적 방향을 탐색하는 데 기여했다. 노영희 외(2018)는 다수의 국내 사례를 분석해 장서 편성과 프로그램 설계를 주제별로 연결하는 실천 프레임을 제시했고, 관장 인식조사를 수행한 노영희와 오의경(2018)은 예산·인력 제약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의 필요성과 지역 연계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합의를 확인하였다. 운영 현황을 점검한 심효정과 노영희(2022)는 특화자료 비중과 전담 인력의 부족, 일회성 프로그램의 비중이 성과를 제약하는 구조적 병목임을 실증했고,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은영과 김선애(2024)는 서비스 포트폴리오의 다양성과 네트워크 연계 수준이 이용성과를 매개함을 보고했다. 이러한 축적은 장서·행사 중심의 '보이는 특성화'에서 일상적 이용과 학습·체험이 순환하는 '작동하는 특성화'로의 전환 필요성을 분명히 한다.

지역 환경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반영하는 설계 연구는 최근 한층 활발하다. 김보일과 김홍렬(2024)은 신설 도서관 계획에서 인구구성, 생활동선, 인근 자원(학교·문화·복지)을 다층적으로 분석해 주제-프로그램-공간-연계의 삼각 구조를 설계 원리로 제시하였다. 특정 지역의 발전방향을 다룬 연구들-김포시(노영희 외, 2020), 인천 동구(노영희 외, 2021)-은 생활권 기반의 주제 차별화와 거버넌스 구축, 관·관 협력의 필요를 병행 제안한다. 더 나아가 신설 예정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임성관과 박은경(2025)은 FGI와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해 관별 주제와 프로그램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도출하고, 기능 분화-상호보완 구조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내재화하는 접근을 보여준다.

주제 특화관의 기능적 모델을 다룬 연구는 특성화가 공간·콘텐츠·경험 설계의 결합임을 강조한다. 박태선(2023)은 특정 주제관의 사례 분석을 통해 큐레이션·참여형 프로그램·상징적 공간 장치가 상호 증폭되며 이용자 경험을 통해 주제 정체성이 재귀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을 제시했다. 이러한 관점은 과학문화, 디지털 리터러시, 지역기억, 생활문화 등 이질적 주제가 각 지역의 인구·기관 분포와 결합할 때 지속성과 파급력이 커짐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선행연구는 개념·정책 정립, 사례 기반 방향 모색, 운영·인식 실태 진단, 지역 맥락 반영 설계, 그리고 주제관 기능 모델의 정교화로 진화해 왔다. 다만 많은 연구가 단면적 지표에 머물거나 단일 요소(장서 또는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주제-장서(비도서·디지털 포함)-공간-인력-서비스-네트워크를 통합한 설계와 장기 성과평가(KPI)의 체계화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유성구 10개 관을 대상으

www.kci.go.kr

로 현황・주변환경・이해관계자 의견을 통합 분석하고, 관별 최종 주제와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맥락에 정합적인 '작동하는 특성화'의 구현 조건을 제안한다.

3. 연구설계 및 방법론

3.1 연구설계와 대상

본 연구는 '보이는 특성화'가 행사 중심에 머무르는 문제를 '작동하는 특성화'의 운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요인을 규명하고 개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명적 혼합방법(explanatory mixed methods) 설계를 채택하였다. 정량 분석으로 관별 특성화의 구조와 성과를 계량화하고, 정성 분석으로 주제-장서-공간-인력-서비스-네트워크의 연결성을 해석하며, 선택 관에 대해 파일럿 개입을 실시한 뒤 전후 효과를 평가하였다. 연구대상은 유성구 공공도서관 전관(10개관)을 기본단위로 하며, 관별로 주제(특성화 명칭・범주), 장서(도서・비도서・디지털 비중), 프로그램(빈도・형식・연속성), 공간(전용・공유 여부와 기능), 인력(전담 배치・역할・FTE), 서비스(대출・연계 서비스), 네트워크(학교・연구기관・복지・생활권 파트너)를 공통 프레임으로 정규화하였다. 자료 수집은 최근 12개월 행정자료(장서・대출・프로그램・공간・인력・서비스)와 이용자・직원 설문, 현장 관찰과 문서 검토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은 연령・생활권・이용빈도에 따른 층화 표본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3.2 자료원, 변수의 조작화 및 지표 구성

행정자료와 설문・관찰・문서 자료를 삼각검증으로 통합하여, 투입-과정-산출-결과의 사슬에 따라 변수를 조작화하였다. 투입 변수에는 전담인력 유무와 수준, 특성화 전용・공유 공간의 존재와 기능, 비도서・디지털 장서의 비중과 접근 장치가 포함되며, 과정 변수는 주제-형식 매칭(예: 과학↔실험키트・DB, 에코↔환경교육 키트・VR), 주제-공간-서비스의 연계 강도, 프로그램의 지속・계열화 여부로 구성하였다. 산출 변수는 특성화 장서 대출량, 프로그램 참여, 특화 서비스 이용(예: 비도서 대출・택배 대출・반납), 디지털 자원 이용 등으로 정의하고, 결과 변수는 이용자 만족・주제 적합성 체감, 관 간 기능 분화와 네트워크 효과, 취약 관의 성과 개선 정도로 측정하였다. 이들 변수를 표준화하여 '작동성 지수(Operability Index)'를 구성하였는데, 핵심 구성요소는 주제-공간 연계, 전담인력 배치, 주제 연계 대출・프로그램의 실가동률, 비도서・디지털 자원의 비중과 접근성, 네트워크 기반 연계서비스 활성화이며, 관별 가중치는 동일 가정에서 시작하되 민감도 분석으로 보정하였다. 결측・'해당 없음' 표기는 별도 코드로 유지하여 공백 자체를 성과 격차의 한 형태로 추적하였고, 관 규모・이용자 구성 등 맥락 변수는 분석 단계에서 공변량으로 통제하였다.

3.3 분석 절차, 타당도・윤리 및 한계

분석은 네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기술통계와 시각화를 통해 관별 분포와 편차를 파악

www.kci.go.kr

하고, ‘공간 없는 특성화’, ‘전담인력 부재’, ‘비도서 대출 부재’와 같은 구조적 신호를 식별하였다. 둘째, 다변량 모형으로 주제-공간-서비스 정합성 및 작동성 지수의 결정요인을 추정하여, 투입과 과정 요인이 산출·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리 식별하였다. 셋째, 선정 관에서 주제-형식 매칭형 장서정책, 비도서·디지털 KPI 도입, 전담인력 최소 배치, 주제 연계 대출·프로그램의 월별 루틴화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개입을 실시하고, 유사 통제 관과의 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기반 전후 비교로 효과를 평가하였다. 넷째, 학교·연구기관·복지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연결지표로 모델링해 관 간 기능 분화와 파급효과를 해석하였다. 도구 신뢰도는 설문 사전 파일럿과 이중 코딩 합치도로 점검하였고, 내용·수렴·판별 타당도는 다원 자료원 삼각검증으로 확보하였다. 연구윤리는 비식별화 원칙 아래 자료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조사 참여자에게 목적·활용 범위·보관 기간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는 절차로 담보하였다. 한계로는 관별 행정자료 기입 기준 차이, ‘해당 없음’ 표기의 이질적 의미, 단기 관찰로 인한 축적성 평가의 제약을 지적하며, 공백의 변수화, 초기격차 보정, 민감도 분석으로 편의를 최소화하였다.

3.4 연구질문

- RQ1. 도서관의 주변 환경·인구 특성과 특성화 주제의 정합성은 실제 운영효과(이용·참여·만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 RQ2. 장서(특히 비도서·디지털), 공간, 전담 인력의 자원구성 조합은 대출·프로그램 참여·서비스화(일상적 이용) 성과를 어떻게 매개하는가?
- RQ3. ‘보이는 특성화’에서 ‘작동하는 특성화’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운영 메커니즘과 거버넌스는 무엇인가?
- RQ4. 실무자 FGI-전문가 자문-구민 인식조사의 다중 피드백은 최종 주제와 실행 전략의 타당도·수용성을 어떻게 높이며,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는가?
- RQ5. 2025-2035 단계별 로드맵에서 디지털 전환·지역연계 확산의 위험과 기회는 무엇이며, 어떤 KPI로 효과를 검증할 것인가?

4. 현황분석 및 의견수렴결과

4.1 유성구 도서관별 특성화 현황 분석 결과

본 절은 제시된 관별 자료를 통합해 특성화 주제-장서-대출-프로그램-서비스-공간-인력-네트워크의 7개 축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결과를 보고한다. 분석의 초점은 ‘주제를 보유했는가’가 아니라 ‘주제가 장서·공간·서비스·인력과 연결되어 실제로 작동하는가’에 두었다.

4.1.1 특성화 주제 현황

유성구 10개 도서관 중 9개관이 특성화 주제를 운영하고 있어(≈90%) 지역특화형 기능 분담의 제도적 기반은 이미 갖춰져 있다. 주제의 분산과 중복 회피 수준도 양호하여 과학기반(유성), 예술(진잠), 역사(구즉), 사회과학(노은), 생활과학(원신흥), 철학(구암), 육아(아가

www.kci.go.kr

랑), 청소년(관평・전민) 등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된다. 관입지와 생활권 수요와의 결합도 뚜렷하여, 유성(연구개발특구 연계 과학), 아가랑(임신・출산・육아), 전민・관평(청소년)이 대표적이다. 반면 용산도서관은 미설정으로, 디지털 시민성・AI・코딩・다문화 등 미래지향형 주제를 신설해 권역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 또한 '철학'과 같은 추상 주제는 프로그램 모델(대중철학 라보・토론클럽 등)과 운영전략을 병행해 실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4.1.2 장서 및 대출 현황

장서는 몇 개 관에 쏠리는 구조다. 노은(14,594권)-유성(13,432권)-구즉(9,570권) 순으로 규모가 크고, 아가랑(1,483권)은 기능 대비 확충이 필요하다. 비도서는 사실상 부재하며, 유성(687종, 약 5%)과 구즉(24종) 외 8개 관이 0종이다. 이는 과학・에코・청소년 등 선언된 주제를 뒷받침할 형식 다변화(AV・키트・데이터・메이킹 장비)의 결여를 의미한다. 대출 역시 편차가 크다. 유성(17,215건)과 노은(13,947건), 원신흥(7,998건)은 특성화 대출이 두드러지는 반면, 전민(2,760건)・구암(2,068건)・아가랑(1,992건)・진잠(1,413건)은 낮은 활용을 보인다. 비도서 대출은 전 관 '전무'로, 보유 자료의 시민 접근성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종합하면, 주제-형식 매칭형 장서정책 도입(예: 과학=실험키트/DB, 에코=환경교육 키트・VR), 비도서・디지털 비중 KPI(예: ≥10%) 설정, 소규모 관 대상 패키지형 디지털 컬렉션 도입이 시급하다.

4.1.3 프로그램・서비스・공간・인력・네트워크 현황

프로그램은 9개 관 중 다수가 주제 연계 운영을 하고 있으나, '지속・심화'의 작동밀도는 관별 편차가 크다. 유성은 3D펜・과학실험 등 STEAM 계열이 활발하고, 아가랑은 요가・태교・쿠킹 등 육아 특화가 정체성을 형성하며, 관평・전민은 청소년 독서・진로 탐색이 집중된다. 그럼에도 일부 관에서는 단발・행사형에 머물러 주제의 체감도가 낮다. 서비스는 실질 운영 관이 4개관(아가랑 택배 대출/반납, 구즉 큰글씨・교과연계 역사 서가, 관평 청소년 특화자료・추천(비중 9%), 전민 북스타트・학교연계 배부)에 불과해, 다수 관은 '주제만 있고 서비스는 없는' 상태다. 공간은 특성화 전용 또는 준전용 공간 보유 관이 4개관(아가랑 활동나눔터・수유실・유아차 소독기, 유성 스튜디오 2실, 관평 청소년 서가, 전민 청소년 zone)이며, 6개관은 '공간 없는 특성화'로 실현력이 약하다. 인력은 관평에만 전담 1명이 배치(참여 비중 54%)되어 있고, 나머지 관은 사실상 전담 공백으로 지속성과 전문성이 제약된다. 네트워크는 유성(스튜디오 후마니타스), 관평(관내 중・고교 3개교), 전민(전민중・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등 5개 관 중심으로 형성되나, 절반은 협력기관이 없다.

4.1.4 시사점

종합 진단결과, 유성구는 높은 주제 도입률과 생활권 연계라는 기반을 이미 확보했으나, 장서의 형식 다변화・비도서 개방, 전담인력 배치, 전용 공간 확충, 생활밀착형 서비스화, 외부 네트워크 전략화가 부족하여 '보이는 특성

www.kci.go.kr

화' 단계에 머무르는 관이 다수다. 따라서 (1) 주제-형식 매칭형 장서정책과 비도서·디지털 KPI의 단계적 도입, (2) 전담인력 최소 1명 배치 및 역할 명세, (3) 전용·준전용 특화공간의 기능 설계, (4) 주제 연계 정기 서비스(대출팩·큐레이션·이동형 프로그램) 루틴화, (5) 학교·복지·연구기관과의 다중 협력모델 구축이 병행될 때, 관별 포지션이 '표시'에서 '작동'으로 전환될 것이다.

4.2 유성구 도서관별 주변 환경분석 결과

분 연구에서는 각 도서관의 자연·정주 환경, 교육·문화·공공 인프라, 교통 접근성, 관광·유물 자원을 종합하여 생활권 수요와 특성화 주제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실행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노은도서관은 어린이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수의 유치원·초·중·고가 밀집한 가족친화 권역이자 지하철 1호선과 유성IC로 접근성이 높다. 가족 단위의 장기 이용을 전제로 독서-돌봄-시민역량 교육을 계열화하고, 부모교육·생활법·미디어 리터러시를 학교·보육기관과 정례 협력으로 묶으며, 유아 전용 리딩룸·부모 라운지와 대출팩·부모 코칭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가랑도서관은 유치원·초등·돌봄시설이 촘촘하고 체험 기반 시설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여 임신·출산·육아 특화와 탁월한 정합성을 보인다. 산전·영유아 발달·부모 코칭을 연령대별 모듈로 계열화하고 보건소·육아센터·지역 병원과 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하며, 이동형 장난감·그림책 키트 대출과 택배 대출·반납을 확대해 돌봄 부담을 실질 경감해야 한다.

원신흥도서관은 신도시형 주거 밀집과 향교·토성 등 전통자원이 공존하고 수변공원·시립박물관이 인접해 생활·문화·역사의 결합도가 높다. 생활과학/생활문화와 지역사 교육을 교차 설계하여 학기·방학 모듈로 운영하고, 박물관·문화시설과 공동 큐레이션 전시·해설 프로그램, 마을기록(구술·사진) 상시 아카이브로 지역 정체성을 축적하는 방향이 적합하다.

유성도서관은 대덕연구단지와 KAIST·ETRI 등 연구기관, 과학관·천문대·지질박물관이 밀집한 국가급 R&D 거점에 위치해 과학지식 융합 특성화가 최적화된다. 스튜디오 기반 디지털 제작·데이터 리터러시·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고도화하고, 연구기관과 멘토링·세미나를 제도화하며, 발명·로봇·천문 관측의 야간 프로그램과 교사 연수형 콘텐츠로 과학문화 허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진잠도서관은 향교·성곽·지석묘 등 역사문화 자원이 밀집한 도농 복합지로 전통과 일상이 공존한다. 지역정체성 보존과 예술·생활공예 결합형 특성화가 유효하며, 향교·전통시장·농촌문화와 연계한 답사-공방-전시 동선을 계열화하고, 주민 구술·사진 기록을 상시 수집하는 '진잠기억 프로젝트'로 지역사 교육의 심도를 높일 수 있다.

구즉도서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이자 대규모 공동주택 밀집지로 청소년·가족 수요가 높고, 생태·레저 자원과 복지·청소년 시설이 근접한다. 생태문화 탐방과 향토 역사 교육을 접목하여 금강·갑천권 야외 관찰과 가

www.kci.go.kr

족 탐방 루트, 학교 연계 교과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관·청소년문화의집과 공동 동아리를 상설화하며, 생태관찰 키트·필드노트 대출과 시장·공원 거점 북스테이션으로 생활 동선에 스며드는 서비스화를 지향한다.

구암도서관은 온천권과 과학문화·관광 자원, 상업지대가 인접해 가족 관광·체험·여가 수요가 혼재하는 도시권 환경에 놓여 있다. 웰니스와 감성예술 결합 특성화를 통해 독서-음악-아트테라피형 프로그램을 주중·야간으로 분산 운영하고, 온천축제·상권과 협력한 거리 전시·팝업 북스테이션을 배치해 체류형 도시 여가를 창출하는 전략이 적합하다.

관평도서관은 생태하천과 자전거도로, 대규모 아파트와 벤처·산업단지가 맞닿은 신도시형 복합지로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교육 인프라가 촘촘하다. 메타인지 기반 진로독서 특성화가 최적이며, 산업체-학교-가정을 삼자 연계하여 진로·학습전략·정서지원 프로그램을 모듈화하고, 직무탐방·멘토 강연·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실전형 서비스를 상시 루틴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전민도서관은 정주 만족도가 높은 주거지이면서 연구단지·대학과 인접한 교육·연구 친화 지역이다. 생활탐색과 마을기록, 청소년 창의활동의 양날개 전략이 적합하며, 청소년 전용 공간을 거점으로 토론-글쓰기-지역 프로젝트 수업을 연계하고, 중학교·진로센터와의 방문형 북스타트·과학진로 독서프로그램을 고도화하면 커뮤니티 기반의 장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

〈표 1〉 유성구 현황분석결과 제안된 특성화 주제

도서관명	제안 특성화 주제	도출 근거 요약 (현황 기반)
노은도서관	사회과학 기반 시민교육	- 기존 특성화 주제 '사회과학', 장서·프로그램 확보, 강연 운영 경험 보유. 별도 공간은 없으나 콘텐츠 우수.
아가랑도서관	임신·출산·육아 특화	- '임신·출산' 주제 명확히 운영 중. 장서·대출량 우수. 관련 프로그램, 공간, 서비스(택배대출)까지 통합 제공됨.
원신흥도서관	생활문화 및 인문교육 특화	- '생활문화' 주제 기반 장서 보유, 대출량 활발. 특화 장서 많고 프로그램 운영 경험도 있음. 서비스 및 공간 미비.
유성도서관	디지털 창작 및 과학융합 교육	- 스튜디오 2개 운영, 과학 관련 장서 및 프로그램 있음. 기존 특화 주제(기술융합)와 잘 연계됨.
진잠도서관	감성예술 및 생활공예 특화	- 예술장비, 드로잉 등 감성형 프로그램 중심 운영. 공간, 서비스는 부족하지만 프로그램 우수.
구즉도서관	역사독서학교 및 향토문화 탐색	- 역사 중심의 연계 독서 프로그램 운영(초·중). 특화 장서·서비스 우수. 프로그램 지속성 있음.
구암도서관	철학적 독서사유 특화	- '철학' 중심의 프로그램과 도서 구축 경험 있음. 특화 장서 비율은 높지 않지만 주제 연계성 확보.
관평도서관	청소년 진로독서학교	- 유일하게 특성화 담당 인력 있음. 특화 장서 비중 9%. 진로 프로그램 활발, 네트워크 협력 우수.
전민도서관	청소년 커뮤니티 리터러시 특화	- '청소년 ZONE' 공간 보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 독서아카데미와 연계 가능.
용산도서관	디지털 시민교육(초기 단계)	- 현재 특성화 주제 없음. 그러나 신규 도서관이며, '디지털 프로그램' 및 관련 활동 기초 있음.

www.kci.go.kr

용산도서관은 갑천 생태축과 자전거도로, 대덕테크노밸리・벤처기업・대형 유통・외국인학교가 인접한 산업・국제성 복합지다. 스마트 시민교육(디지털 리터러시・AI・코딩・다문화)이 최적 주제로, 직장인을 겨냥한 야간・주말 트랙과 외국인지원・다문화 리터러시, 데이터・보안・윤리 교육을 묶은 시민 디지털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기업・스타트업・유통과 연계한 애프터워크 프로그램과 기기・키트 대출의 원스톱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하면, 유성구의 도서관들은 정주밀도와 가족친화, 과학벨트・산업・국제, 전통・도농복합, 온천・관광-여가 등 서로 다른 생활권 축 위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주제-공간-서비스-네트워크의 설계 우선순위가 명확히 갈린다. 각 관은 현행 주제의 심화 또는 리브랜딩 여부를 결정하되, 인접 기관과의 정례 협력, 전담 인력 배치, 준전용 공간 확보를 통해 생활동선과 학습・돌봄・여가의 결을 따라가는 운영 루틴을 구축할 때 '보이는 특성화'에서 '작동하는 특성화'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4.3 도서관 특성화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본 절은 실무자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외부 전문가 면담, 구민 인식 설문을 종합하여 각 관의 최종 특성화 주제의 적정성과 실행 시 사점을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술한다. 전반적으로 제안・조정된 최종 주제에 대한 수용도는 높았으며, 관별 맥락(입지・이용자 구성・인프라 준비도)에 따른 미세 조정 필요 지점이 확인되었다.

우선 실무자 FGI에서는 2025년 8월 7일 10명이 참여한 온라인 회의를 통해 도서관별 특성화 주제 적합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제안된 최종 주제가 대체로 적정하다"는 다수 의견 속에, 명칭과 범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제언이 제시되었다. 노은-아가랑의 경우 영유아・부모 대상 수요가 모두 두드러져 주제를 상호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노은은 '가족성장', 아가랑은 '육아지원'으로 확정되어 상호 보완적 차별화가 가능해졌다. 원신흥은 "현행 생활과학을 유지하되 공간적 특성화 방안을 보강"하자는 실무자 의견이 있었으나, 관 간 중복 최소화 및 지역 문화자원 연계성을 고려하여 최종 주제를 '역사인문'으로 전환하였다. 유성은 "인문+문화+과학 융합"의 방향성을 실무자가 제안했고, 최종 주제 '과학문화'가 이를 포괄하는 우산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진잠은 '지역기억'의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나 장서 확충의 난점을 우려하였고, 이에 따라 수집 전략과 구술・사진 기록 아카이브를 결합한 단계적 축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관평은 "세대 구분을 넘는 미래 설계(성장・진로・삶)형" 요구가 제기되어 '진로성장/진로상상'으로 확정, 기존 청소년 중점에서 생애주기 확장성이 강화되었다. 전민의 '생활공감'은 복합문화예술공간 구축 경험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었고, 용산은 "스마트 기기 인프라 부재" 현실을 반영해 '시민배움'으로 넓혀 초기에는 부모・자녀교육 모듈을 선배치하는 방향이 제안되었다. 구즉('생태체험'), 구암('감성예술')은 실무자 의견과의 괴리가 적어 무리 없는 이행이 가능하다는 평가였다.

2025년 8월 7일 4명이 참여한 외부 전문가

www.kci.go.kr

면담 결과 또한 “최종 주제 전반의 적정성”을 재확인하였다. 노은은 청소년 비중을 고려해 가족 단위에서 청소년을 포함하는 설계가 바람직하다는 보완 의견이 제시되었고, 원신흥은 대규모 주거지와 박물관 인접성을 근거로 ‘역사문화교육’의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유성은 연구기관 밀집이라는 입지 논거로 ‘과학지식융합/과학문화’의 일관성이 확인되었으며, 구암은 생활거주・중장년 이용자 비중을 들어 “생애주기적 관점의 감성예술”을 주문, 현재 주제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폭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관평은 커뮤니티 기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을 감안해 진로・자기이해에 문화요소(예술・음악・프로젝트)를 접목하라는 권고가 제시되었다.

구민 인식 설문에서는 유성구에 거주하는 이용자,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총 1,072명이 응답했고 이 중 유효표본은 1,005명(이용자 804명, 비이용자 201명)으로 지역 할당 추출 방법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모든 관의 최종 주제가 5점 만점 기준 평균 3.5 이상을 기록하여 전반적 수용성이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용도를 보인 관은 아가랑 ‘육아지원’(3.86), 유성 ‘과학문화’(3.83), 구암 ‘감성예술’(3.75), 원신흥 ‘역사인문’(3.71)으로 나타나, 주제-생활권 수요의 직관적 정합성이 이용자에게 잘 읽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간대(3.60~3.69)인 노은 ‘가족성장’(3.68), 관평 ‘진로성장/진로상상’(3.65), 전민 ‘생활공감’(3.64), 구즉 ‘생태체험’(3.63), 용산 ‘시민배움’(3.61)은 프로그램・공간・서비스의 가시적 패키지화가 수용도 상승의 열쇠로 보인다. 최저점이지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인 진잠 ‘지역기억’(3.56)은 장서・기록아카이브의 가시성과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의 빈도를 높여 체감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실무자-전문가-이용자 3자 의견은 “최종 주제의 적정성”에 대해 수렴하였고, 이견은 주로 명칭의 포괄도, 초기 인프라(공간・장비) 준비 정도, 생애주기 확장 범위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 주제 명명 규칙의 통일(예: ‘○○문화/○○성장/○○체험/○○기억’ 등 가독성 높은 2~3어 구성), (2) 초기 6개월 ‘가시화 패키지’(핵심 프로그램 2종+상시 공간 1종+정기 서비스 1종) 도입, (3) 인프라 제약이 있는 관(용산・진잠 등)의 단계별 로드맵(비장비형 교육 모듈→경량 장비→전용 공간) 적용, (4) 수용도 하위 관의 집중 보강 KPI(참여율・재방문율・네트워크 연계 건수)를 제시한다. 이러한 후속 설계를 통해 ‘보이는 주제’를 넘어 이용자가 체감하는 ‘작동하는 특성화’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

4.4 유성구 도서관 특성화 최종 도출결과

본 연구에서는 내부 자원(장서・프로그램・공간・인력・서비스・네트워크)과 외부 환경(입지・인근 시설・인구구성)의 분석을 교차검증하고, 실무자 FGI와 전문가 자문, 구민 인식조사를 종합하여 각 관의 특성화 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도출 원칙은 기존 운영 성과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성과 수요 기반 성장을 반영하는 리브랜딩에 두었고, 유성구 전체 차원에서 주제 간 기능 분화와 상호보완 체계를 이루도록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www.kci.go.kr

그 결과, 노은도서관은 가족 단위 이용과 교육・돌봄 인프라의 밀집도를 고려하여 '가족성장'으로, 아가랑도서관은 산전・영유아 중심의 축적된 운영경험과 돌봄 네트워크를 반영해 '육아지원'으로 확정하였다. 원신흥도서관은 전통문화 자원과 박물관 인접성, 생활권 학습 수요를 결합하여 '역사인문'으로 리브랜딩하였고, 유성도서관은 연구기관 밀집이라는 독보적 입지와 과학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근거로 '과학문화'를 최종 주제로 선정하였다. 진잠도서관은 향교・성곽・지석묘 등 지역 자산의 집적을 살려 '지역기억'으로, 구즉도서관은 생태축과 가족 주거지 특성에 부합하도록 '생태체험'으로 확정하였다. 구암도서관은 온천・관광・도심 생활권이 교차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감성예술'로, 관평도서관은 산업・학교・가정이 맞물린 학습・진로 생태계를 반영해 생애주기 확장형의 '진로성장(진로상상)'으로 정리하였다. 전민도서관은 정주만족도가 높은 커뮤니티 기반과 청소년 창의활동의 연계를 포괄하는 '생활공감'을, 용산도서관은 디지털・국제・다문화 수요가 공존하되 초기 장비 제약을 고려한 시민학습 지향의 '시민배움'을 각각 최종 주제로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확정된 관별 최종 주제는 생활권 수요와 내부 역량, 외부 네트워크의 정합성을 담보하면서도 상호 간 중복을 최소화하여, 유성구 공공도서관 체계 전반이 주제별로 분화・연계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본 도출은 향후 관별 실행 설계의 기준축을 제공하며, '보이는 특성화'를 넘어 '작동하는 특성화'로 이행하기 위한 주제 체계의 최종 확정으로 기능한다.

〈표 2〉 도서관별 특성화 주제의 최종 제안

도서관명	현특성화 주제	현황분석결과	주변환경 분석결과	행정동 분석결과	제안 주제	최종확정 주제	직원 의견	전문가 의견	설문 결과
노은 도서관	사회과학	사회과학 기반 시민교육	영유아 가족친화	영유아・가족친화 독서문화관	영유아 가족친화	가족성장	적정	적정	3.68
아가랑 도서관	임신・출산・육아	임신・출산・육아 특화	이동복합 보육지원	임신・출산・육아 복합지원 특화관	임신・출산・육아 복합지원	육아지원	적정	적정	3.86
원신흥 도서관	생활과학	생활문화 및 인문교육 특화	역사문화학교	역사문화교육 특화관	역사문화교육	역사인문	적정	적정	3.71
유성 도서관	기술・순수과학	디지털 창작 및 과학융합 교육	과학지식융합	과학융합 지식정보관	과학지식융합	과학문화	적정	적정	3.83
진잠 도서관	예술	감성예술 및 생활공예 특화	지역정체성 보존	지역정체성 보존 특화관	지역 정체성 보존	지역기억	적정	적정	3.56
구즉 도서관	역사	역사독서학교 및 향토문화 탐색	생태문화 탐방	생태문화 탐방 독서관	생태문화 탐방	생태체험	적정	적정	3.63
구암 도서관	철학	철학적 독서사유 특화	웰니스감성예술	웰니스 감성예술 특화관	웰니스 감성예술	감성예술	적정	적정	3.75
관평 도서관	청소년	청소년 진로독서학교	메타인지 기반 진로독서	진로독서 & 메타인지 학습관	진로독서 & 메타인지 학습	진로성장 진로상상	적정	적정	3.65
전민 도서관	청소년	청소년 커뮤니티 리터러시	생활탐색 & 마을기억	생활밀착형 독서 & 마을기록관	생활밀착 독서 & 마을 기억	생활공감	적정	적정	3.64
용산 도서관	없음	디지털 시민교육	스마트시민교육	스마트 시민교육관	스마트 시민교육	시민배움	적정	적정	3.61

www.kci.go.kr

4.5 도서관별 특성화의 핵심가치와 비전

본 절은 생활문화의 개념-즉, 지역 주민이 일상성과 자발성, 다양성과 인지성에 기반해 참여하는 유형·무형의 문화활동-을 운영 철학의 토대로 삼아, 유성구 각 도서관의 특성화 주제에 정합적인 핵심가치-비전-목표-추진전략을 체계화한다. 핵심가치는 지역 수요(가족 돌봄, 평생학습, 진로탐색, 디지털 역량 등)와 이용자 구성(아동·청소년/고령층 등)을 반영하여 도출했고, 비전은 주제의 미래지향성과 지역 정체성을 동시에 담아냈다. 목표는 관별 운영 여건을 고려한 측정 가능한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실행은 ①콘텐츠(자료·아카이빙·전시), ②프로그램(독서교육·강좌·체험), ③공간(전용/준전용 특화공간), ④연계협력(학교·복지·연구·문화기관)이라는 4대 축으로 전개한다.

노은도서관(가족성장)은 '돌봄과 배려'를 핵심가치로 삼아 "가족이 함께 자라는 도서관"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목표는 가족 중심 독서문화의 정착이며, 영유아 독서 프로그램의 상시화, 부모교육과 육아정보의 체계적 제공, 가족참여형 행사 운영, 육아지원기관과의 연계로 달성한다. 콘텐츠·공간·시간을 가족의 일상 리듬에 맞춰 재설계하여 체류와 재방문을 유도한다.

아가랑도서관(육아지원)은 '생애주기 존중'을 가치로 하여 "임신·출산·육아의 중심 도서관"을 지향한다. 예비부모-영유아 대상 정보서비스를 목표로, 발달단계별 특화 장서 확충, 임산부·부모 대상 특강, 보건·건강과 연계한 복합 콘텐츠, 지역 육아 커뮤니티 협력망을 촘촘히 구축한다. 돌봄 부담 완화와 정보 접근성 제고가 성과지표의 핵심이다.

원신흥도서관(역사인문)은 '문화정체성'을 가치로 "지역 역사를 배우고 나누는 지식기반 도서관"을 비전으로 삼는다. 인문역량 강화와 역사이해 증진을 목표로, 지역사 자료 수집·전시, 인문학 강좌 기획, 학교·문화기관 협력 교육, 지역자산 기록·보존을 통합 설계한다. 시민연구와 생활사 기록을 잇는 아카이빙이 차별점이다.

유성도서관(과학문화)은 '창의와 도전'을 가치로 "과학으로 미래를 여는 창의도서관"을 제시한다. 과학소양 및 디지털 문해력 증진을 목표로, 체험형 과학 콘텐츠 개발, AI·SW 융합 프로그램, 과학특화자료실 고도화, 과학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연구도시라는 입지와 시민 과학커뮤니케이션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맡는다.

진잠도서관(지역기억)은 '공동체 기록'을 가치로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기록도서관"을 비전으로 한다. 주민 주도의 지역기록 활성화를 목표로, 마을 구술 채록과 아카이빙, 기록전시·간행, 주민참여 스토리 수집, 지역단체와의 상시 협업을 추진한다. 기록의 생산-보존-활용 선순환을 운영 루틴으로 정착시킨다.

구즉도서관(생태체험)은 '지속가능성'을 가치로 "자연과 함께 배우는 생태문화도서관"을 지향한다. 생태 감수성과 생물다양성 교육을 목표로, 생태 독서-야외체험 통합 기획, 인근 생태자원과의 정례 연계, 생태교육 자료 구축, 환경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생활권 자연을 학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다.

구암도서관(감성예술)은 '공감과 치유'를 가치로 "감성으로 물드는 문화예술도서관"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정서적 치유와 예술 감수성 증진을 목표로, 미술·음악·문학 융합 콘텐츠,

www.kci.go.kr

〈표 3〉 도서관별 특성화의 핵심가치와 비전

도서관명	특성화 주제	핵심가치	비전	목표	4대 추진전략
노은도서관	가족성장	돌봄과 배려	가족이 함께 자라는 도서관	가족 중심 독서문화 조성	① 영유아 독서 프로그램 운영 ② 부모교육 및 육아정보 제공 ③ 가족참여형 행사 개최 ④ 육아기관 연계 협력
아가랑도서관	육아지원	생애주기 존중	임신·출산·육아의 중심 도서관	예비 부모와 영유아 대상 정보서비스 제공	① 영유아 맞춤 자료 확충 ② 임산부/부모 특강 운영 ③ 건강·보건 연계 복합 콘텐츠 개발 ④ 지역 육아 커뮤니티 연계
원신흥도서관	역사인문	문화 정체성	지역 역사를 배우고 나누는 지식기반 도서관	인문역량 강화 및 역사 이해 증진	① 지역사 콘텐츠 수집 및 전시 ② 인문학 강좌 기획 운영 ③ 학교·문화기관 협력 교육 ④ 지역자산 기록 및 보존
유성도서관	과학문화	창의와 도전	과학으로 미래를 여는 창의도서관	과학소양 및 디지털문해력 증진	① 과학 체험형 콘텐츠 개발 ② AI·SW 융합 프로그램 운영 ③ 과학특화자료실 구성 ④ 과학기관 연계협력 체계 구축
진잠도서관	지역기억	공동체 기록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기록도서관	주민 주도 지역기록 활성화	① 마을구술 채록 및 아카이빙 ② 지역기록전시 및 발간 ③ 주민 참여형 스토리 수집 ④ 지역단체 협업 지속화
구축도서관	생태체험	지속 가능성	자연과 함께 배우는 생태문화도서관	생태 감수성 함양 및 생물다양성 교육	① 생태 관련 독서 및 체험 기획 ② 인근 생태자원 연계 프로그램 ③ 생태교육 자료 구축 ④ 환경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암도서관	감성예술	공감과 치유	감성으로 물드는 문화예술도서관	정서적 치유 및 예술적 감수성 증진	① 미술·음악·문학 융합 콘텐츠 ② 심리·치유 독서프로그램 ③ 전시·공연 콘텐츠 운영 ④ 감성기록장, 창작 지원
관평도서관	진로성장 진로상상	자기주도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탐색 도서관	아동·청소년 진로 인식 및 메타인지 학습 향상	① 진로독서활동 프로그램 운영 ② 직업군 연계 강연 기획 ③ 메타인지 독서교육 ④ 학교 및 진로기관 협업 강화
전민도서관	생활공감	일상연결	이웃과 마을을 잇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주민공동체 기반 생활 독서 플랫폼 구축	① 주민참여형 독서모임 지원 ② 생활기록 콘텐츠 수집 ③ 마을이야기 전시/공유 ④ 커뮤니티 중심 공간 구성
용산도서관	시민배움	디지털 포용	스마트시대, 모두를 위한 시민학습 도서관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및 시민의식 제고	① 디지털 기초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다문화·외국인 대상 정보서비스 ③ 온라인 학습콘텐츠 연계 ④ 글로벌 시민교육 콘텐츠 도입

www.kci.go.kr

심리・치유 독서, 전시・공연 프로그램, 감성 기록장과 창작 지원을 결합한다. 도심 여가와 예술 경험을 촉진하는 생활밀착형 모델을 지향한다.

관평도서관(진로성장・진로상상)은 '자기주도'를 가치로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탐색 도서관"을 비전으로 삼는다. 아동・청소년의 진로 인식과 메타인지 향상을 목표로, 진로독서 프로그램, 직업군 연계 강연, 메타인지 독서교육, 학교・진로기관 협업을 정례화한다. 산업단지・학교 네트워크를 실습・멘토링으로 구체화한다.

전민도서관(생활공감)은 '일상연결'을 가치로 "이웃과 마을을 잇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지향한다. 주민공동체 기반의 생활독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주민참여 독서모임 지원, 생활기록 콘텐츠 수집, 마을이야기 전시・공유, 커뮤니티 중심 공간 구성을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일상 문제 해결과 커뮤니티 소통을 결속시킨다.

용산도서관(시민배움)은 '디지털 포용'을 가치로 "스마트시대, 모두를 위한 시민학습 도서관"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시민의식 제고를 목표로, 디지털 기초교육, 다문화・외국인 대상 정보서비스, 온라인 학습콘텐츠 연계, 글로벌 시민교육 도입을 추진한다. 직주근접・다문화 환경을 반영한 시간표와 서비스 구성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관별 핵심가치와 비전은 단계적 재특성화 로드맵(2025~2035)의 기준축을 이룬다. 1단계(진단-브랜딩-참여 재설계)에서 정체성과 브랜드를 공고히 하고, 2단계(지역연계-확산-성과 고도화)에서 학교・복지・연구・문화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파급력을 확대하며, 3단계(미래전환-기술융합-지속가능성)에서 AI/AR・메타버스 등 디지털 도구를 주제별로 적합하게 결합한다. 전 단계에 걸쳐 ① 핵심 프로그램의 상시화, ② 특화자료・비도서・디지털 자원의 가시적 확충, ③ 전담・겸임 인력의 역할 명세화, ④ 정례형 협력 네트워크와 공통 KPI(참여율・재방문・특화서비스 이용・협력건수)의 반기 점검을 통해, '보이는 특성화'를 넘어 작동하는 특성화의 거버넌스를 정착시킨다.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앞선 현황・환경 분석과 의견수렴의 비교결과를 통합하여 '보이는 특성화'를 '작동하는 특성화'로 전환시키는 핵심 요인을 규명한다. 논의는 (1) 지역 맥락과 주제 정합성, (2) 자원구성의 매개효과, (3) 운영 메커니즘과 거버넌스, (4) 다중 피드백의 타당도・수용성, (5) 단계별 로드맵의 위험・기회와 평가체계 순으로 전개된다. 우선, 지역의 인구・기관 분포・생활동선 등 외부 환경과 각 도서관의 주제 설정 간 적합성이 이용・참여・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지역 맥락과 주제 정합성의 효과

유성구 각 도서관의 주변 환경・기관 분포와 최종 특성화 주제 사이의 정합성은 이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1차 요인으로 확인된다. 연구기관 밀집・과학문화 인프라를 보유한 유성도서관의 '과학문화', 영유아 돌봄 인프라와 교육시설이 집중된 노은・아가랑의 '가족성장・육아지원', 생태축과 주거지가 공존하는

www.kci.go.kr

구즉의 '생태체험', 정주만족도와 커뮤니티 활동성이 높은 전민의 '생활공감'은 모두 생활권의 동선·접근성·인지된 필요와 주제가 일치한다. 이러한 매칭은 참여의 심리적·물리적 비용을 낮추어 프로그램 재참여율과 일상시간대 이용률(체류), 협력 네트워크의 형성 용이성을 증폭시키며, '보이는' 간판 수준을 넘어 운영성과로 귀결되는 입지기반 작동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주제 선정·조정의 기준은 지역 수요-인근 자원-생활 동선의 삼중 일치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이는 이후 자원 배분과 성과지표 설계의 우선순위를 규정한다.

2) 자원구성(장서·공간·인력)의 매개효과와 최소 실행단위

현황분석은 비도서·디지털 자원의 부족, 전담 인력의 희소성, 전용 공간 결핍이 대출·참여·서비스화에 구조적 병목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주제-형식 불일치(예: 과학 주제이나 실험키트·메이킹 장비 부재)는 이용률을 제약하고, 전담 촉진자가 없는 경우 프로그램은 단발성 이벤트로 소멸한다. 우수사례는 공통적으로 테마-장서(비도서/디지털 포함)-공간-인력을 패키지화해 매개효과를 극대화했다. 본 논문은 관별 MVO(Minimum Viable Operation)를 제안한다: 상시 핵심 프로그램 2종, 전용/준전용 특화공간 1곳, 주제 매칭형 장서정책(비도서·디지털 비중 연차 목표치 설정), 전담/촉진 인력 1명(겸임 가능). 이 최소 실행단위는 대출 회전·참여·체류지표를 동시 개선하는 실천적 단위이며, 특히 비도서·디지털 비중(예: 특화장서의 10% 이상)을 KPI로 명시하면 '보유→이용' 전환을 가속한다.

3) '작동하는 특성화'를 위한 운영 메커니즘과 거버넌스

비전과 목표가 일상 운영으로 전환되려면 6S 통합모델-Theme, Collection, Space, Staff, Service, Synergy(대외연계)-이 관행으로 내재화되어야 한다. 테마화된 서비스 루틴(주제 큐레이션→체험/학습→성과 공유), 촉진자 역할의 전담 사서/코디네이터, 학교·복지·연구·문화기관과의 상시 네트워크가 핵심 메커니즘이다. 구 차원의 특성화 PMO는 관별 MVO 승인·예산 배분, 관-관 연합 프로그램(예: 과학×진로, 역사×시민배움) 설계, 공통 KPI 대시보드와 반기 리뷰, 인력 순환·양성 표준(연계 MOU·데이터 공유 포함)을 총괄한다. 이를 통해 관별 중복을 최소화하고 비교우위를 선명하게 하며, '보이는' 주제가 조직의 루틴과 데이터 거버넌스로 작동하도록 만든다.

4) 다중 피드백(실무자-전문가-구민)의 타당도와 수용성 제고

실무자 FGI, 전문가 자문, 구민 인식조사의 삼중 피드백은 최종 주제군과 명명·범위의 미세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현장 적합성과 정서적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는 프로그램·공간·장서·서비스의 의사결정이 공동 설계(co-design) 체계 위에서 이루어질 때 지속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제도화 방안으로 분기별 '특성화 디자인 보드' 운영, 프로그램 종료 후 30-60-90일 추적조사(재참여·추천의도·행동변화)를 표준화하고, 주민 제안을 시범운영-평가-정규화로 연결하는 개방형 파이프라인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피드백을 단순 의견수렴이 아니라 예산·공간 재배치, 장서 포트폴

www.kci.go.kr

리오, 협력 우선순위 조정의 데이터 근거로 연결하는 운영 규칙이다.

5) 단계별 로드맵의 위험・기회와 평가프레임

1단계는 진단-브랜딩-참여 재설계의 창을 열지만 과업 분산과 성과 가시성 지연의 위험이 있다. 각 관은 신속성과 상징성이 높은 퀵윈(Quick Win)-상시 공간 1곳, 핵심 프로그램 2종, 비도서・디지털 목표치 도입-으로 초기 성과를 확보해야 한다. 2단계는 지역연계 확산의 기회와 함께 파트너 의존 위험이 증대되므로, 표준 MOU와 공유 커리큘럼, 관-관 공동사업으로 리스크를 분산한다. 3단계는 AI/AR・메타버스 등 디지털 융합의 도약기이나 접근성 격차가 핵심 위험이므로, 고령층・다문화 대상의 보조기술・튜터링・시간표 설계를 내장해 포용적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 평가체계는 참여(재참여율・가족동반 참여), 이용(특화 대출회전・비도서/디지털 이용), 학습・경험(사전-사후 역량 변화), 네트워크(MOU・공동프로그램・파트너 만족), 지속성(상시화 비중・자원 주제적합도)으로 구성된 공통 KPI와 관별 보완지표를 결합한다. 이 프레임은 '보이는 특성화'를 넘어 지역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 특성화로의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량・정성으로 검증하는 장치가 된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성구 공공도서관의 특성화를 '보이는 특성화'에서 '작동하는 특성화'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를 설계하고, 현황・주변환경・이해관계자 의견을 통합 분석하여 관별 최종 주제와 실행 전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유성구는 주제 도입률과 운영 의지는 높으나 장서 포트폴리오의 형식 다양성(비도서・디지털), 전담 인력, 전용 공간, 지속적 네트워크에서 구조적 결핍이 확인되었다. 반면 주제-입지 정합성이 높은 관일수록 참여・체류・재방문 등 성과가 우수해, 지역 수요와 생활 동선을 축으로 한 설계가 특성화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함을 확인하였다.

첫째, 관별 최종 주제는 지역 맥락과 내부 자원을 함께 반영해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고 상호보완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했다. 과학문화(유성), 가족성장・육아지원(노은・아가랑), 역사인문・지역기억(원신흥・진잠), 생태체험(구즉), 감성예술(구암), 진로성장/상상(관평), 생활공감(전민), 시민배움(용산)으로의 분화는 구 전역의 문화적 변수와 생활권 수요를 균형 배치한다. 이는 '관-테마-이용자군-협력자원'의 매칭을 통해 주제 체감도를 높이고, 프로그램이 일상적 서비스로 전환되는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성과를 매개하는 핵심 인자는 테마-장서-공간-인력-서비스-연계(Synergy)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운영 설계였다. 특히 주제-형식 불일치를 해소할 주제 매칭형 장서정책(비도서・디지털 ≥ 일정 비율)과 상시 운영 가능한 준전용 공간,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전담(또는 겸임) 인력, 지역기관과의 정례 네트워크가 결합할 때 대출회전・참여・체류의 선순환이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최소 실행단위로 MVO-핵심 프로그램 2종(상시/학기제), 상시 공간 1개, 장서・비도서・디지털의 연차 목표, 전담/촉진 1인-를 관별 표준으로 제안한다.

셋째, 거버넌스는 구 차원의 특성화 PMO와

www.kci.go.kr

관별 실행조직의 이중 구조가 효과적이다. PMO는 관별 MVO 승인과 예산 배분, 관-관 연합 프로그램 설계, 공통 KPI 대시보드 운영, 인력 순환·양성, 협력 표준안(MOU·데이터 공유)을 총괄한다. 이를 통해 관별 차별성과 구 전체의 응집도를 동시에 확보하고, 주제 운영을 조직의 루틴과 데이터 관리로 내재화할 수 있다.

넷째, 실무자 FGI-전문가 자문-구민 인식조사로 이어지는 다중 피드백은 최종 주제의 타당도와 수용성을 높였다. 피드백은 단순 의견 수렴이 아니라 예산·공간 재배치, 장서 포트폴리오 조정, 협력 우선순위 결정에 직결되는 운영 규칙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분기별 '특성화 디자인 보드' 운영과 프로그램 종료 후 30-60-90일 추적조사 도입은 성과관리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다.

다섯째, 단계별 로드맵(2025-2035)은 ① 진단-브랜딩-참여 재설계(1단계), ② 지역연계 확산-성과 고도화(2단계), ③ 미래전환-디지털 융합-지속가능성 확보(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가시적 퀵윈(상시 공간 1개, 핵심 프로그램 2종, 비도서·디지털 목표 도입)으로 초기 신뢰를 확보하고, 2단계는 표준 MOU·공유 커리큘럼·관-관 공동사업으로 파트너 의존 리스크를 분산하며, 3단계는 AI/AR·메타버스 등 기술 도입 시 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포용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예산 구조를 실사용 중심으로 전환하라. 장서 예산의 일정 비율을 비도서·디지털에 의무 배정하고, 프로그램·서비스 운영비를 별도 항목으로 관리해 '보유→이용' 전환을 촉진하라. 둘째, 전담/촉진 인력 배치와 역량 체계를 확립하라. 관별 1인의 책임·성과·교육 로드맵을 명시하고, 구 단위 직무공동체(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를 운영하라. 셋째, 상시 공간의 최소 요건을 규정하라. 전용이 어려우면 가변형 모듈로도 상시성을 확보하고, 주제 시그니처 전시·체험을 상설화하라. 넷째, 연계 네트워크의 정례화와 공유 커리큘럼을 도입하라. 학교·복지·연구기관과의 연간 캘린더를 공동 기획하고, 관-관 연합 프로그램으로 확장하라. 다섯째, 평가-의사결정 연동형 KPI를 운영하라. 참여(재참여·가족동반), 이용(대출회전·비도서/디지털 이용), 학습·경험(사전-사후 역량), 네트워크(협력건수·만족), 지속성(상시화 비중·주제 적합도)을 공통 지표로 삼고, 반기 리뷰로 예산·공간·장서를 신속 재조정하라. 여섯째, 포용과 접근성을 내재화하라. 고령층·다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시간표, 언어 지원, 보조기술, 튜터링을 표준 운영지침에 포함하라. 일곱째, 브랜딩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라. 관별 비전-핵심가치-시그니처 프로그램을 일관된 언어와 시각체계로 대외 소통하고, 생활 플랫폼(학교 가정통신문·캠퍼스·지역 커뮤니티)과 연동하라.

연구의 한계로는 장서·프로그램·공간·인력의 정량지표 장기 추적과 비용-효과 분석이 충분치 못하고, 관외 비교집단을 활용한 인과평가의 제약이 있어 효과 검증 및 성과 측정이 명확하지 않다. 후속 연구는 관별 MVO 도입 전·후를 비교하는 준실험 설계, 시민 과학형 데이터 수집, 서비스 디자인 개입의 효과 검증, 디지털 포용 설계의 사회적 가치 산정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모델의 타

www.kci.go.kr

지역 적용 가능성과 전이 조건에 대한 논의 및 일반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유성구 도서관 체계를 주제별 분화-상호보완-지속 운영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이를 실행 가능한 패키지와 거버넌스·지표 체계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기여가 크다. 궁극적으로 유성구의 특성화는 주민의 일상 속에서 지식·문화·돌봄·미래역량을 순환시키는 공공 인프라로 기능하며, 이는 지역의 삶의 질과 사회적 회복력을 동시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은영, 김선애 (2024). 공공도서관 특성화 서비스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3), 87-111. https://doi.org/10.16981/kliss.55.3.202409.87

김보일, 김홍렬 (2024). 지역 환경 기반의 특성화 도서관 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 A군 도서관 건립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41(1), 59-83. https://doi.org/10.3743/KOSIM.2024.41.1.059

노영희, 곽우정, 신영지 (2018). 도서관의 특성화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한 도서관 특화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3), 245-270.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3.245

노영희, 신영지, 곽우정 (2017). 도서관의 특성화 정책과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241-271.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3.241

노영희, 오의경 (2018).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방향에 대한 도서관 관장의 인식조사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151-178. https://doi.org/10.16981/kliss.49.2.201806.151

노영희, 장인호, 강지혜, 김동석 (2021). 인천광역시 동구 특화도서관 운영전략 도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8(2), 39-63. https://doi.org/10.3743/KOSIM.2021.38.2.039

노영희, 정대근, 노지윤 (2020). 이용계층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김포시 특화도서관의 발전방향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1), 43-70. https://doi.org/10.16981/kliss.51.1.202003.43

박태선 (2023). 주제 특화도서관의 기능적 특성 연구: 김근태기념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6(2), 113-131. https://doi.org/10.22772/dcaj.2023.6.2.113

심효정, 노영희 (2022). 특화도서관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3), 47-72. https://doi.org/10.16981/kliss.53.3.202209.47

임성관, 박은경 (2025). 수원시 신규 건립 예정 도서관의 특성화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3), 317-338. http://dx.doi.org/10.16981/kliss.56.3.202509.317

www.kci.go.kr

조찬식 (2008).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159-178. https://doi.org/10.3743/KOSIM.2008.25.3.159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 Chan-Sik (2008). Study on the specialization of the public libraries.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 25(3), 159-178. https://doi.org/10.3743/KOSIM.2008.25.3.159

Kang, Eunyeong & Kim, Sunae (2024).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specialized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Focusing on the Bus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3), 87-111. https://doi.org/10.16981/kliss.55.3.202409.87

Kim, Bo-il & Kim, Hong-Ryul (2024). A study on the operation direction of the specialized library based on the local environment: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of County A Library.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 41(1), 59-83. https://doi.org/10.3743/KOSIM.2024.41.1.059

Lim, Seong-Kwan & Park, Eungyung (2025). Specialization strategies for newly established libraries in Suwon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6(3), 317-338. http://dx.doi.org/10.16981/kliss.56.3.202509.317

Noh, Younghee & Oh, Euikyung (2018). A study on the library director's perception on public library specialization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2), 151-178. https://doi.org/10.16981/kliss.49.2.201806.151

Noh, Younghee, Chang, Inho, Kang, Jihei, & Kim, Dongseok (2021). Study on deduction of operation strategies for specialized library in Dong-gu, Incheon.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 38(2), 39-63. https://doi.org/10.3743/KOSIM.2021.38.2.039

Noh, Younghee, Jeong, Dae Keun, & Ro, Ji-Yoon (2020).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specialized library in Gimpo City reflecting user clas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1), 43-70. https://doi.org/10.16981/kliss.51.1.202003.43

Noh, Younghee, Kwak, Woojung, & Shin, Youngji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library specialization based on case analysis.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3), 245-270.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3.245

Noh, Younghee, Shin, Youngji, & Kwak, Woojung (2017). A study on policies and future

www.kci.go.kr

directions in library specialization.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3), 241-271.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3.241

Park, Tae-sun (2023). A study of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specialized libraries: Focusing on the case of Kim Geun-Tae memorial library-archives. Journal fo D-Culture Archives, 6(2), 113-131. https://doi.org/10.22772/dcaj.2023.6.2.113

Sim, Hyojung & Noh, Younghee (2022). A study on the operation status of specialized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3), 47-72. https://doi.org/10.16981/kliss.53.3.202209.47

www.kci.go.kr